

# ‘국선’ 朴 재판, 다시 본궤도 오를까

법원이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 5명을 새로 지정함에 따라 향후 재판이 본궤도에 다시 오를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일단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사건 국선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했다.

재판부는 법조인 경력(6~31년 차), 국선변호인 경험,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이번 국선변호인단을 선정했다.

법원이 이날 국선변호인을 지정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형식상 개시 구성 요건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향후 정상 속도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까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 사건 관련 서류만 12만 페이지가

법원, 25일 역대 최다 5명 변호인 지정

방대한 기록 검토만 상당시간 걸릴 듯

대응 본격 시작해도 박근혜 협조 의문

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단은 이에 대한 검토에 상당한 시간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법원이 이날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재판 속도와 관련이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기일 시작 전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인터넷 등을 통한 과도한 ‘신상털기’, 불필요한 오해·역측, 과열된 취재 경쟁으로 인해 재판기록 검토 등 해당 변호인들의 충실한 재판 준비에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 우려된

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단에 수월하게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볼 때도 재판은 그리 속도를 못낼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재판부 불신’의 뜻을 노골적으로 전하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어 19일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집결 자체에 응하지 않는 등 재판 대응 의지

를 전혀 내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 상태거나 형량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의 죄목으로 기소된 경우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된다.

법원은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번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 규모는 피고인 1명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로 알려졌다.

세월호 선원 재판 당시 국선변호인 6명이 지정된 적이 있지만 당시엔 피고인이 복수였다.

뉴시스

## 아인슈타인 ‘행복론’ 족지 17억원 낙찰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행복론이 담긴 족지 2장이 2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에서 열린 경매에서 각각 130만 달러(약 14억 7000만원)와 20만 달러(약 2억 5000만원)에 팔렸다.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이 끊임없는 불안에 묶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준다’는 내용이 담긴 족지는 130만 달러,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족지는 20만 달러에 낙찰됐다.

경매회사 위너스 유선 엔 익지비즈니스는 이날 설명에서 아인슈타인이 1922년 일본 여행 중 자신의 노벨물리학상 수상 소식을 들었고 도쿄에서 일본인 심부름꾼에게 팁을 줄 돈이 없어서 대신 독일어로 쓴 족지 2장을 썼다고 밝혔다.

이 경매회사의 최고경영자(CEO) 갈 위너는 “아인슈타인은 당시 심부름꾼에게 자신의 명성 때문에 자신이 손으로 쓴 족지가 보통 받는 액수의 팁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매가가 200달러에서 시작된 이 경매에서 개시 25분 만에 입찰전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경매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 태국, 닷새간 푸미폰 前국왕 장례식 거행

70년 126일 이라는 세계 최장수 재위기록을 세우고 지난해 10월 13일 타계한 푸미폰 아둔야뎃(라마 9세) 전 태국 국왕의 장례식이 오늘(25일)부터 거행된다.

25일 현지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푸미폰 전 국왕의 장례식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불교형식인 대비식은 오는 28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8일 정오)에 왕궁 인근 사남 루앙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남 루앙 광장 인근에는 벌써부터 푸미폰 전 국왕의 대비식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빗속에서도 밤을 새우며 푸미폰 전 국왕을 추모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태국 근관계지는 “미하 외치탈롱군 국왕은 국민을 걱정하고 있다”며 “그들을 꾸짖거나 엄격하게 굴지 말고, 친절하게 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군부 대변인에 따르면 뿌랏웃 잔오차 총리 역시 관리들에게 장례식을 보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융통성 있게 다룰 것을 지시했다.

전 세계 왕족 역시 푸미폰 전 국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을 찾는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아키히노 왕자부부, 카타르의 타니 빈 하미드 빈 칼리파 알타니 왕자 등 16개국의 왕족이 장례식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도 박주선 국회의장, 훈센 캄보디아 총리 등 26개국 주요 인사가 방문할 예정이다.

푸미폰 전 국왕은 지난 1927년 12월 부친 마히돈 왕자의 하버드대학 의대 유학시절 태어났다.

1942년 스위스 로잔대학교에서 물리학과 법학을 공부했으며, 라마 8세에 즉위한 형이 1년만에 사망하자 1946년 왕위를 계승했다.

1950년 4월 28일 즉위식 일주일 전에 몸라차왕 시리깃 까피야폰을 만나 결혼해 네 명(1남3녀)의 자식을 두었다. 그의 사후 아들 외치탈롱군 국왕이 즉위했다.

## 멕시코 검찰, 폭탄실은 드론 운반 4명 검거

멕시코 중앙 북부의 과나후아토주 검찰은 강력한 폭탄을 실은 원격조종 폭발장치의 드론을 운반하던 4명의 남자를 적발 이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과나후아토주의 카를로스 자미라와 검찰총장은 이들이 지난 주 살리만 카 시 부근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연방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승용차에는 “커다란 폭발물 장치가 실려있었고 공격용 소총도 발견되었다.”

이들이 문제의 드론을 어디에서 폭발시키려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조직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마약 조직이나 단체원인지는 밝히기를 거절했다.

과나후아토주는 멕시코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간중 다른 주들이 겪었던 것 같은 폭력을 상당히 덜 당한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는 전문 갱단과 열차 강도 전문 조직들에 의해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해왔다.



심폐소생술 배워요 25일 오전 대구 수성구 어린이회관에서 열린 '2017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에 참가한 유치원생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다.

## 최초 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발목 잡은 전남도의회

사업 설명 부족·의원간 감정싸움으로 예산심의 보류

전남도교육청이 최초로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국비예산까지 확보했으나 도의회의 제동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의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공모에 전남지역 A대안학교가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

공립 대안학교는 국비 40억원과 전남도교육청 15억원, 담양군 15억원 등 총 70억원을 투입해 설립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담양군과 구 봉산초등학교 양지분교에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전남도의회가 5개월이 넘도록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있어 예산 집행할 수 없다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국비와 교육청·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학교의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유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예산안 상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간 감정싸움까지 벌어져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렸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 공모사업 자체가 민간위탁형인 데도 도의회가 사유화를 우려하고 설명 부족을 이유로 드는 것은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A대안학교 관계자는 “예산 심의가 미뤄지면서 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는 등 대안학교 설립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올해를 넘겨 예산 집행 보류가 장기화될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담양 양지분교에 설립할 공립 대안학교는 학교에 적용하지 못하는 광주, 전남·북, 제주권 중·고등학교 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교육기관이다.

전남도교육청과 A대안학교는 담양군의 생태 인문학 특구사업과 연계한 마을학교 개념의 대안교육을 구상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 시비 끝에 주점 손님 흉기 살해 50대 구속

유흥주점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다른 손님을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이 남성은 살인 혐의로 12년 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유흥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생면부지의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장모(50)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 A(53)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광주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장씨는 주점 화장실에서 A씨와 시비가 붙은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님 여러 명이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는 주점에서 장씨가 ‘자신도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A씨가 오래 부른다는 이유로 A씨와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시비 이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주점으로 들어가려다가 자신을 말리던 다른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주점에 다시 들어가자마자 A씨의 배를 찔렀으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업주에게 붙잡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호 기자

**큰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